

# 中 1~2월 산업생산 13.5%↓...첫 마이너스

### 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도 크게 나빠...“극적인 붕괴” 평가도 중정부 “국민경제, 코로나19 충격”...실업률 6.2%로 높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국의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일제히 시장 예상을 한참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13.5% 급감했다. 월간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해마다 1월과 2월을 오가는 음력 설인 춘제(春節) 요인으로 1월과 2월에만 두 달 치를 묶어 한 번에 발표한다.

작년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6.9%였다. 시장이 예상한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3%였다. 실제 발표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산업생산을 비롯해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극적인 붕괴’(dramatic collapse)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1~2월 산업생산 지표가 추락한 것은 이 기간 중국 내 대부분 산업 시설이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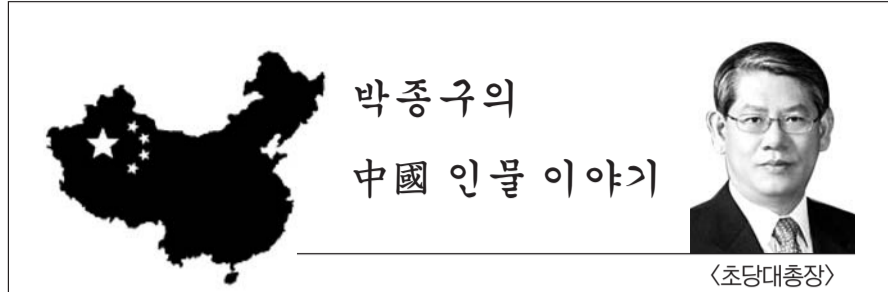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1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한 폐렴’ 우려가 서서히 커졌다. 1월

23일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는 겹잡을 수 없이 커졌고 중국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인구 이동 억제 정책을 펴면서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경제 전반 영역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1~2월 산업생산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안팎에는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문화대혁명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생산은 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다.

이날 발표된 다른 주요 지표도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1.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귀금속·보석(-41.1%), 자동차(-37%), 가구(-33.5%), 의류(-30.9%), 건축자재(-30.5%), 가전(-30.0%) 등 여러 제품의 소비가 급감했다. 인프라 시설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투자 역시 1~2월 24.5% 급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6.0%가량에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무디스는 최근 펠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2%에서 4.8%로 낮췄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24〉 여혜경

여혜경(呂惠卿, 1032-1112)의 자는 길보(吉甫)로 복건성 천주 남안 사람이다. 북송 신종, 철종, 휘종 때의 정치인이다.

인종 가우 2년(1057) 진사시에 합격했다. 진주 추관을 거쳐 수도로 돌아와 왕안석과 인연을 맺었다. 서로 정치이념이 부합해 평생지기가 되었다. 신종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만들고 왕안석을 기용해 신법 개혁에 나섰다. 왕안석은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추천했다. “여혜경의 재능이 여찌 현대대 사람들에겐 출중하겠습니까. 선왕의 도리를 배워 쓸 수 있는 자는 여혜경 뿐입니다.” 신법의 주요 내용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신법당의 핵심이 되었다. 세간에서는 왕안

과다투는 이유를 묻자 “왕안석이 그 자리에서 편하지 않은 것은 신 때문입니다.” 결국 동년 10월 파면되어 진주주로 나갔다.

1082년 모친상을 치른 후 태학사, 지태원부의 관직에 올랐다. 신종이 섬서 지방을 잘 다스릴 것을 명하자 “섬서의 군사는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저 형세에 의존한다”고 변명하였다. 화가 난 신종이 “섬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곳인데 여찌 그대에게 맡기겠는가”라며 단주로 좌천시켰다.

1085년 철종이 즉위하자 구법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를 신법의 중심으로 몰아 탄핵하였다. 건영군절도부사로 좌천되었다. 섭정을 하던 고태후가 죽자 철종이 친정에 나섰고 신법당이 재기했다. 1094년 복직되었다. 중앙으로 복직되기를 희망했으나 황제가 가납치

## 코로나19 확산에 을 석유 수요 감소폭 사상 최대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계 각국이 이동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올해 석유 수요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 기관들은 작년 대비 올해 석유 수요 감소폭이 2009년의 금융위기 때의 하루 100만배럴은 물론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80년의 하루 265만배럴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평균 1억 배럴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석유 수요 하락을 점치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석유 컨설턴트들은 최근 이틀간 수요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IHS마킷은 올해 평균 석유 수요 감소가 하루 평균 142만배럴에서 최악의 경우 280만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컨설팅업체인 FGE는 석유 수요 감소량을 하루 130만배럴로 예상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감소폭을 9만 배럴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하루 석유 수요 감소폭이 40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더 큰 수요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석유를 거래하는 헤지펀드 안듀란드 자산운용의 피에르 안듀란드는 “코로나19는 대공황 직전인 1918년 이후 보지 못했던 충격”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석유 수요가 어떻게 급감했는지 떠오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생필품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獨기업 장악 코로나 백신 독점 시도 논란

독일 정부 저지 나서

독일 백신 전문기업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이 독점하려 하자 독일이 저지에 나섰다. 독일·영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15일(베를린 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독일 바이오기업 큐어백(CureVac)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독점권을 갖고자 인수나 권리 이전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큐어백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후 큐어백을 주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큐어백의 성과를 독점하려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 연구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알아차린 독일 정부가 미국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독일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미국의 큐어백 장악 시도가 사실인지에 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오

늘 정부 내 여러 인사로부터 그게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내일 위기관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큐어백은 사실 확인 요청에 “회사나 기술 인수 제안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세계 여러 기관·당국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큐어백 인수를 타진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벨트암존탁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연합뉴스

## 북송 정치인...신법 개혁 실무 주역

석을 공자로 여혜경을 공자의 수제자인 안연으로 불렀다. 한강 여혜경 증포 여가문 장단이 왕안석을 보좌한 5인이었다.

희녕 2년(1069)부터 7년(1074)까지 그는 삼사조례사, 사농사, 국자감을 거쳐 지간원, 지제고, 한림학사를 역임했다. 이어 부재상인 참지정사에 올랐다. 왕안석의 아들 왕방과 함께 왕안석의 삼경신(三經新義)을 편찬하였다. 구법당을 이끈 사마광은 그에게 특히 비판적이었다. 신종에게 말하기를 “여혜경은 간사하다. 변법에 관한 책략을 꾸미고 왕안석을 통해 이를 시행하려 하니 세상 사람들이 왕안석 또한 간신이라 여긴다” 신종은 “그가 올리는 대책은 조리가 분명하고 재능이 뛰어나다”며 옹호했다.

1074년 왕안석이 중앙을 떠나며 참지정사로 추천했다. 한강과 여혜경은 “신법을 전하는 도사”로 불렸지만 사실상 그가 반대편의 공격과 비판을 뚫고 막아냈다. 반대파인 정협은 상소를 올려 공격했다. 동년 수실법을 제정해 백성들의 재산을 일제조사하도록 해 면역전의 균등한 납입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조정의 갈등이 심해지자 1075년 2월 왕안석이 다시 재상으로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둘 사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못했다. 한강은 왕안석과 틀어져 관직을 그만두었다. 신종이 왕안석

않아 지방에서 근무했다. 휘종이 즉위한 후 진남을 담당했다. 신법당의 장돈, 증포, 채경 등은 그의 간악한 성품을 싫어해 중앙으로 복귀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결국 지방을 전전하다가 1112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신법 개혁의 실무 주역이었다. 신종 초 군수법, 청묘법, 시역법, 면역법 등의 법령을 직접 만들었다. 그러나 욕심이 많고 권력욕이 강해 왕안석과 갈등이 깊어졌다. 왕안석이 재상에서 물러난 연후에는 그를 공격했고 개인 서신까지 공개해 헐뜯었다. 왕안석은 그를 깊이 신임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왕안석의 동생인 왕안국은 그를 ‘아첨꾼’으로 간주했다. 왕안석은 “가장 친밀한 전우”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신임했고 부재상인 참지정사로 추천하였다. 사마광은 왕안석에게 서신을 보내 “아첨하는 무리는 지금 공의 마음에 들게 온갖 일을 다하지만 일단 세를 잃으면 반드시 공을 팔아먹을 것이다”라며 그를 경계할 것을 권했다. 왕안석이 재상으로 복귀한 후에는 왕안석이 유학을 버리고 황제를 속이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왕안석을 “공자에 버금가는 성인”으로 따르던 여혜경은 그를 공격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왕안석은 강등으로 은퇴한 후 복건 출신인 여혜경을 뜻하는 복건자(福建子)라는 세글자를 반복해 쓰면서 후회했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